



교섭속보

6호

2018년 8월 21일 화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노재욱

마라톤 실무교섭 했으나, 노사 입장차 좁히지 못해 끝내 결렬!
새로운 노사관계 만들자던 말은 말뼉이었나!?

0904 파업전야제로 모이고 말하고 바꾸자!

16일(목)부터 19일(일)까지 자율타결 위해 실무교섭 진행했으나, 결국 노사 입장차 좁히지 못해 결렬

5차 본 교섭에서 노사 대표위원들은 자율 타결의지를 내비치며 실무교섭에서 좋은 성과를 내자고 했다. 그러한 의지를 이어 받아 16일(목)부터 19일(일)까지 매일 3차례, 밤 10시까지 실무 교섭을 진행하며 요구안 심의를 진행하며 노사 입장을 좁히고자 했으나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그리고 지난 3차 교섭에서 노재욱 지부장이 제안했던 대표자가 참가해 요구안에 대한 수용과 불가를 직접 결정하는 축조 교섭에 대해서도 의료원은 답변하지 않았다.

결국, 8월 20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접수

8월 22일 중앙노동위원회 1차 사전 조사 진행

우리지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 자율 타결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약 2회의 회의를 거쳐 노사 입장과 요구안에 대해 심의 후 조정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파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노동조합이 부여 받게 된다.

노사 사전 조사는 22일 오후 2시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노동

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우리지부는 노재욱 지부장 및 실무교섭을 담당했던 이장구 사무장, 최재원 조직부장이 참가해 노동조합이 요구한 임금 인상 및 인력 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복지요구안, 단협 미이행 사항 등에 대해서 진술할 예정이다.

고대의료원지부 투쟁, 산별과 함께 한다!

한편, 8월 20일 조정신청 접수는 고대와 더불어 한양대, 이대, 경희대가 동시 신청했으며 강동성심병원은 어제 오후 6시 조정신청보고대회를 진행했다. 또한 같은 날인 9월 4일 동시 파업전야제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산하 사업장들의 집단 조정신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오늘 오전 10시 30분 ● 일자리 창출(공짜노동 근절, 주52시간시행, 태움 방지 위한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개선) ● 노사정 보건의료업종별 협의체 구성과 산별교섭을 위한 보건의료 사용자단체 구성 ● 의료민영화 법안 처리 반대 ● 15일간의 쟁의조정기간 투쟁계획과 이후 파업투쟁계획 발표 등의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조정신청을 기점으로 지부투쟁과 산별투쟁이 거침없이 준비

되고 있다. 남은 것은 조합원들 모두가 의료원에 우리의 요구를 쟁취할 수 있도록 기세를 보여주는 것만 남았다.

고대의료원의 새로운 노사관계.

말뿐이 될 것인가, 진정한 시작으로 만들 것인가.

고대의료원의 교섭은 늘 교섭 - 파행 - 조성신청 - 파업전야제로 이어지는 것이 관례처럼 되었다. 그러나 이는 의료원의 전근대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과 2004년 산별투쟁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 계속해서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노동조합은 노사관계의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손을 내밀었다. 산별차원에서 사립대 병원의 발전을 논의하는 정책협의체를 제안했으나 거부했으며, 노사문화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나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결국 아직까지도 노사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지부는 산별과 지부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원에 손을 내밀었고 이에 의료원의 새로운 집행부에서도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노사관계의 의지를 보이며 새로운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첫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이를 계기로, 2018년 교섭에서는 요구안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노동조합에 의료원의 경영상황을 공유하며 노사가 함께 고민하자는 의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정작 결과는 없었다. 과연 이 결과를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가.

노동조합은 의료원이 지난번과 같은 전근대적 관계를 벗어나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것이라면 9월 4일 파업전야제의 모든 역량을 쏟아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자율 타결의 의지가 남아있다면 남아있는 15일간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의료원의 의지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모든 판단과 책임은 의료원의 몫이다.

고대의료원 3000조합원이 모이고, 말하고 바꾸는 날!

로비동성	각 병원 로비동성을 진행합니다. 응원하러 오세요!
조기출근 선전전	8월 30일, 31일, 9월 3일, 4일
	전 조합원은 반드시 하루씩은 나와서 우리의 요구를 외쳐봅시다!
파업 전야제	9월 4일
	무조건 모이는 날입니다. 있는 약속도 취소하고, 없던 약속 만들지 말고, 취소를 못하는 약속이라면 친구까지 데리고 꼭 안암동으로 오세요!